

# Never Grow Up

[ 작품계획서 / WORK PLAN ]

## ■ 작품 개요

분야	무용(발레)	발표년도	2020년 초연 <청년실신> 2021년 재연 <Never Give Up>
작품 형태	공연		<input type="checkbox"/> 신작 / 초연 <input type="checkbox"/> 기존작 / 재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존작 / 재창작

## ■ 공연 개요

공연 일시	2023.09.09. 토 19:00 2023.09.10. 일 18:00 (예정)	공연 장소	부평아트센터 달누리극장 (예정)
-------	--	-------	-------------------

## ■ 개인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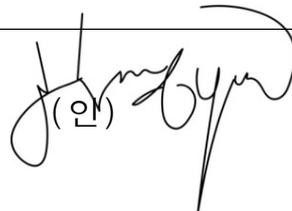
아함아트프로젝트의 안무가이자 이번 작품을 기획한 함도윤은 인천 출생으로, 무용을 시작하고 인천예술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발레무용수가 되었다. 이후 한성대학교(동대학원)를 거쳐 2008년 국립 발레단 <로미오와 줄리엣>객원 을 시작으로 서울발레시어터 단원, 대만 Kaohsiung City Ballet 객원주역 등 프로 발레단과 다수의 공연에서 프리랜서 무용수로 경력을 쌓았으며, 대중예술인 뮤지컬과 영화에서 배우로도 활동 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축적된 예술철학과 스타일을 고유의 방식으로 대중에게 선보이고자 2019년부터 전업 안무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9 사단법인 한국발레협회 '우수신인안무가상' 수상을 비롯해 서울발레시어터 <피터 팬>, Netflix 영화 <발레리나> 등의 안무를 맡으며 안무가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메일	<a href="mailto:deewaii@naver.com">deewaii@naver.com</a>	홈페이지	<a href="http://iham.modoo.at">http://iham.modoo.at</a>
생년월일	1988.10.10.	연락처	010-7595-8810
영상URL	초연 <청년실신> (2020) : <a href="https://youtu.be/iT2GpnNVL0c">https://youtu.be/iT2GpnNVL0c</a> 재연 <Never Give Up> (2021) : <a href="https://youtu.be/8l9LzS1-sb4">https://youtu.be/8l9LzS1-sb4</a> <b>*영상 외부 유출 금지</b>		

이 계획서의 모든 내용은 창작자가 직접 작성하였으며,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타인의 아이디어를 도용하거나 표절한 사실이 일체 없음을 밝힙니다. 따라서 창작물의 지적재산권(저작권)은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창작자 : 함도윤



(인)

# I. 작품 개요

## ○ 목적 및 필요성

### 1. 발레의 다양성

최근 장르간의 협업과 경계가 모호해지는 예술 작품들이 많아지고 있으나, '발레'는 장르가 가진 고유의 특성과 보편적 인식이 더욱 강한 편임. 따라서 특색이 짙은 발레를 기반에 두고 '연극적 요소'와 '인상적인 비주얼', '오브제의 활용' 등이 결합된 본 작품을 통해 발레, 나아가 무용 공연의 다양성을 확보하고자 함.

### 2. 대중성

국내 발레계는 교육과 대표 발레단 중심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어 소규모 단체, 신진 안무가들의 활동의 환경이 적은 편임. 그러나 신진 안무가로서의 독창성과 대중예술 활동경험을 접목하고, 동시에 관객들의 호응을 얻는 대중적인 레퍼토리로서의 확장성을 선보이며 소규모 단체, 신진 안무가로서의 이정표를 제시하고자 함.

### 3. 동시대적 메시지

본 작품의 전작 <Never Give Up>(2021)을 발표하며 관객들의 피드백(리뷰)을 얻은바있음. 이는 예술가로서 누군가의 삶에 작은 방향성이 되어야겠다는 사명감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번 공연을 통해 예술가로서 성숙해지고, 정서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창작활동을 펼치고자 함.

## ○ 작품 의도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는 속담은 누군가에게겐 저주다. 어떤 일이든 가장 급하고 필요한 사람이 그 일을 서둘러 하게 된다는 것으로 결론짓는 탓이다. 그렇게 위험하고 더럽고 힘든 일일수록 아쉬운 사람이 삼을 들기 마련이다. 물론 아쉬운 사람들마저 망설일 때가 있다. 그런 일에는 '위험수당', '야근수당' 이라는 포인트가 붙는다.

꿈은커녕 돈 많이 버는 직업, 안정적인 직업이 곧 꿈인 청년들. '등록금', '학자금대출', '생활고' 등의 빚을 지고 사회에 나오는 청년들. 이로 인해 더 위험하고 힘들지만, 더 많은 돈을 버는 일을 하는 청년들. 이 작품은 이런 우리들의 '치열한 삶을 비추는 자화상'이나, 짹 하고 해 뜰 날을 간절히 기도하는 모두를 위한 '심심한 위로와 격려'이기도 하다.

## ○ 작품 내용

"높은 거 보다 돈이 더 무서운 거죠." 고층 유리창 청소부가 어느 예능방송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 것일까? \*청년실신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을 움직임, 시각화하여 내몰리는 청년들의 치열한 삶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인간의 내면을 표현하고자 한다.

\* 청년 실신 : 청년 '실업자'와 '신용불량자'의 앞 글자를 합성해 만든 조어로, '학자금 대출 등의 돈을 빌려놓고 취직을 하지 못해 갚지 못하는 청년들이 늘고 있는 현실'을 뜻한다.

# II. 재연 개선안

## ○ 젠더프리(Gender Free) 캐스팅

- 배우의 성별에 관계없이 배역을 캐스팅을 하는 것을 뜻하는 용어로서, 9명의 출연자가 모두 남자였던 기존작 <Never Give Up>의 역할에 젠더를 정해놓지 않고 이를 표현할 수 있는 무용수를 캐스팅하고자 함. 2일간의 공연일 동안 남/여 그룹을 나누어 공연함으로써, 같은 역할임에도 움직임이나 표현방법에 있어 무용수 각자의 개성과 스타일을 살리고, 다양성을 보여주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1일차 공연	2일차 공연
9명의 남자무용수	9명의 여자무용수

- 중장기 비전으로서, 향후 뮤지컬에서 공연되는 리미티드 런 형식으로 남자그룹/여자그룹/혼성그룹 등의 다양한 캐스팅으로 관객들의 재관람과 홍보적 효과를 통해 무용에서는 비교적 장기간의 공연을 기획하고자 함.

## ○ 작품의 내용 확장

- 초연 <청년실신>과 재연 <Never Give Up>에서는 청년실업, 신용불량자를 소재로 청년들의 '치열한 삶'과 '내면의 갈등' 등에 중점을 맞추었음. 이번 삼연에서는 영원히 청년일 수 없다는 '청년'이라는 용어 자체에 집중하여 시간이 흐르며 조금씩 개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 계속 존재하고 성장하는 '사람'의 모습을 담아내고자 함. 따라서 제목을 'Never Give Up' 이나 재연작을 의미하는 'Never Give Up 2'가 아닌 또 다른 의미로서 <Never Grow Up>으로 하고자 함.

구분	기존	재연
제목	Never Give Up	Never Grow Up
주제	청년들의 치열한 삶	청년으로서의 삶
주요 소재	-청년 실업 -치열한 삶과 경쟁 -꿈과 현실 -포기하지 않음	-청년 실업 -치열한 삶과 경쟁 -꿈과 현실 -포기하지 않음 -성장과 성찰

### ○ 연극적 요소의 활용

- 기존작 <Never Give Up>에서도 내레이션을 활용한 바 있었으나 직접적인 메시지 전달을 위한 청각적 요소로 사용되었음. 이후 다양한 안무 활동을 통해 연극적인 요소인 '연기'와 '대사'를 활용하였고 이는 곧 안무가만의 스타일로서 자리매김하였음. 이번 작품에서도 확장되는 내용을 포함한 작품의 내용을 관객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감상할 수 있도록 '대사'를 활용하고자 함.

## III. 세부 내용

### ○ 장면 구성

#### - #1-1. GRAND OPENING : 세상으로 나오다

내가 생각한 어른은 '갓 스물을 넘긴 주민등록상의 성인'이 아니라, 회사를 다니며 사회에서 바쁘게 사는 '어엿한 어른'이었다. 사람들은 나에게 그런 어른이 되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고 가르쳤고, 대학교라는 빛만을 따라 세상에 나왔다.

#### - #1-2. OVER THE WALL

삭막한 도시 속 어디 한 곳 몸 기댈 곳은 없고, 계속되는 실패 속에서 어릴 적 꾸던 꿈은 것은 잊혀진지 오래됐다.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곧 꿈인 지금, 깊은 터널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 - #2-1. RUN part.1 : 면접과 취직 [Office Sequence = 오피스 시퀀스]

이력서와 면접을 통한 취직, 인턴이라는 시한부 생활, 승진을 위한 고과 등 모든 평가와 잣대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뒤쳐지지 않아야한다. '기계'와 기계 같은 '사람'이 뒤섞여 씬 없이 달린다. 매일 끊임없는 경쟁과 의미 없는 분투가 이어진다.

#### - #2-2. RUN part.2 : 학업&스펙 [3\*3\*3 Sequence = 삼삼삼 시퀀스]

계속되는 경쟁에 나는 쉬어서는 안 되고 쉴 시간도 없다. 계속해서 일을 반복해야한다. 방향성이 희미해진다. 이제는 불을 쫓는 나방처럼 그저 높은 곳을 향해 오른다.

#### - #2-3. RUN part.3 : 높 [Runway Sequence = 런웨이 시퀀스]

이 길이 맞는지 고민하는 찰나의 순간. 발만 헛디디면 추락하는 길 위에 서있는 나를 발견한다. 목표와 길을 완전히 잃은 채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시작된다.

#### - #3-1. CONFUSED : SOLO [Solo Sequence = 솔로 시퀀스]

비로소 위험을 인지했지만 지금은 어린 애도 아닐뿐더러 돈을 벌기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현실과 이상 그 막다른 곳에서 이상향을 외면한다.

#### - #3-2. CONFUSED [Beat Sequence = 비트 시퀀스]

다시 고층 빌딩을 오르는, 바닥을 기어가는 형상들이 지난다. 그리고 나오는 사뭇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하고, 현재의 몸부림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 그 뒤로 여전히 이 터널 속을 헤매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고 이내 그 속에서 혼란을 느낀다.

#### - #4. NEVER GIVE UP [Requiem Sequence = 레퀴엠 시퀀스]

'의지가 없다', '배가 불렀다' 지금의 어른들은 우리를 손가락질 한다. 청년들의 쌓여왔던 응어리가 터지고 처절한 메아리가 흠먼지처럼 퍼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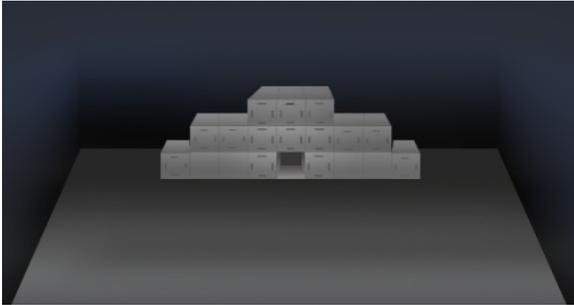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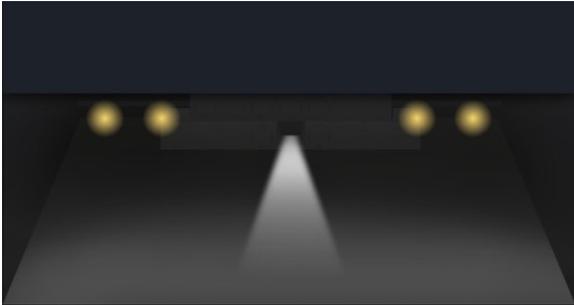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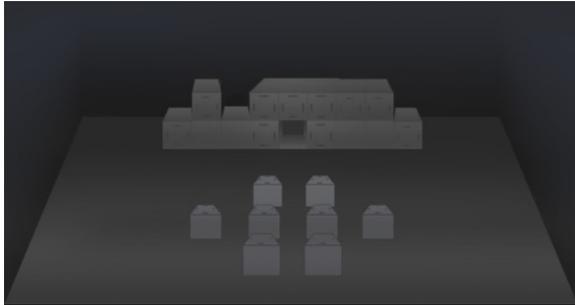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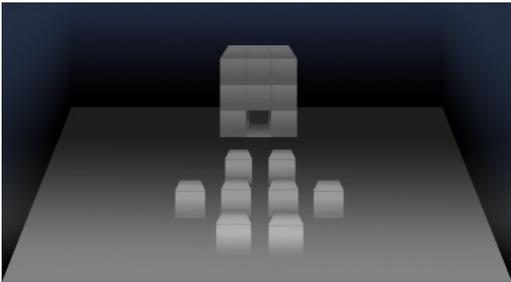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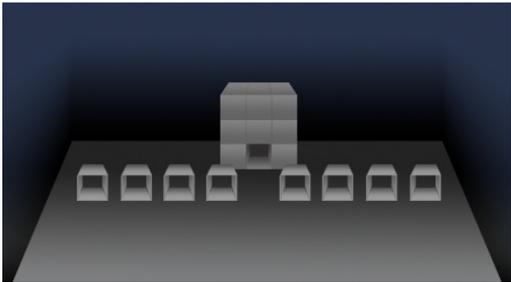
#### - #5. GROW UP [Ordinary Sequence = 일상 시퀀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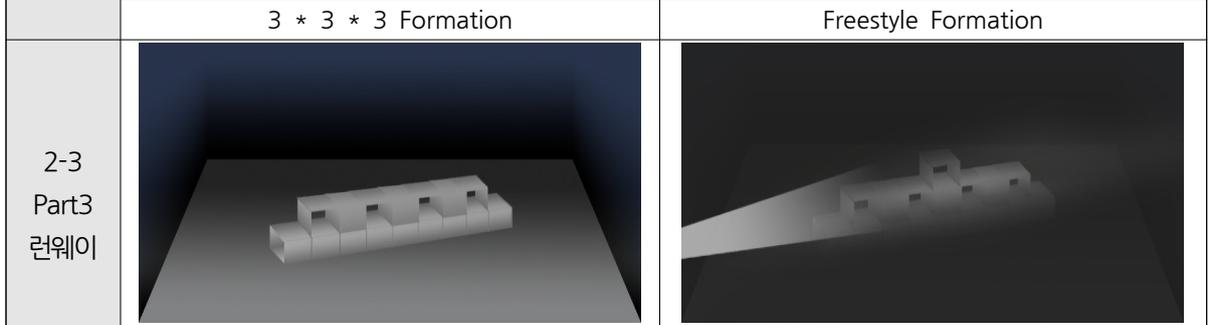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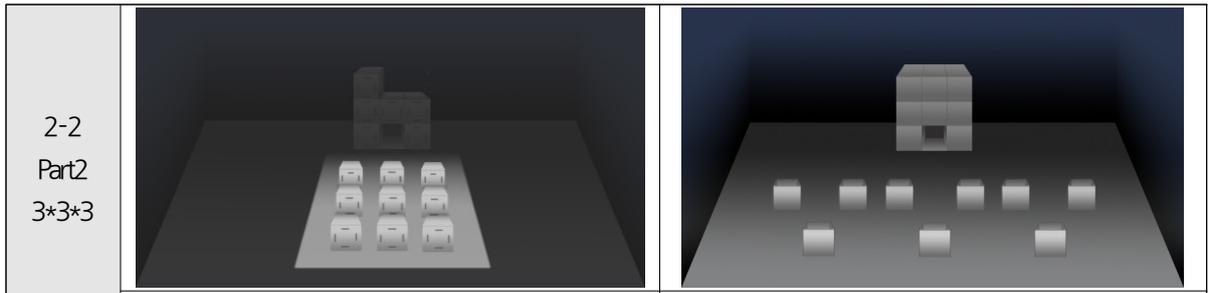
돌아온 일상 이전과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마치 나이를 먹은 듯하다. 그리고 청년일 때의 '나'를 생각한다.

#### - #E. EPILOGUE 터널의 끝 : 빛/빛 [Ending]

이 어둠의 굴레에 갇힌 우리가 출구를 찾을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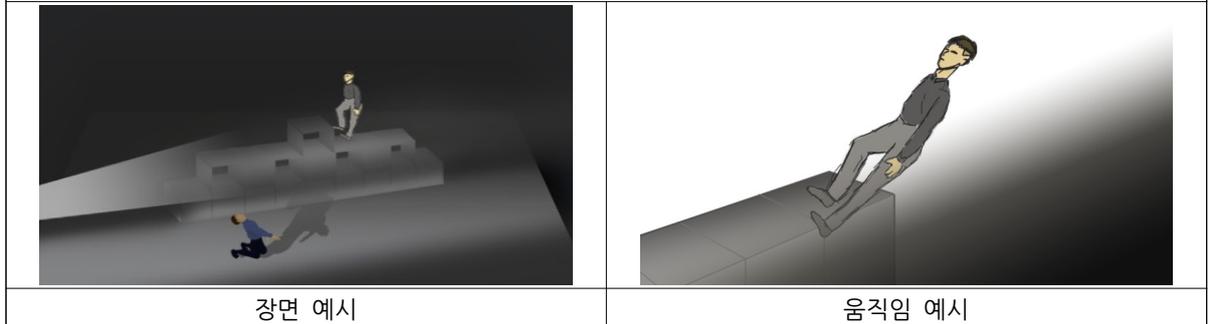
○ 장면 구성

1-1	소주제	Grand Opening	러닝타임	20'00"
	<p>오케스트라 조율음이 들린다. 악기들의 조율음은 마치 이 세상(무대)에 나올 청년들의 긴장된 호흡소리 같다. 빈 무대. 무용수들이 일렬로 서있다. [내레이션에 맞춰 움직임이 시작되고 정적. 이윽고 첫 무용수가 등장하고 각기 다른 에피소드를 텍스트와 움직임, 연기로 표현한다.</p> <p>남자 : (1) Drunken - (2) Inflection Point(COIN) - (3) Hiki Komori - (4) It's Me          여자 : 미정 *〈청년실신〉 버전으로 변경될 수 있음.</p>			
장면 스케치				
				
PRE-SET		DRAW CURTAIN DOWN		
1-2	소주제	Over The Wall		
	<p>전 장면이 끝이 나면 청년9가 입장한다. 이제 막 이 세상에 나온 그는 쭈뼛쭈뼛 한다. 도심의 소리가 들리는 음악이 시작되고, 커튼이 올라가면서 무대 한가득 스모그가 쏟아져 나온다. 희미한 PRE-SET 사이로 무용수들이 세상으로 넘어온다. - 자신의 자리에 선다.</p>			
장면 스케치				
				
Over the Wall		Office		
2	소주제	Run	러닝타임	16'00"
	<p>시장이 세트 상단부에 등장하고 (Acting) 호루라기 소리에 무용수들이 일제히 움직인다. 취직을 위한 면접과 스펙 쌓기 / 직장에서의 기계적인 업무와 높은 곳을 향한 욕망을 표현한다. &lt;#2-1. Table Sequence : 테이블, 학업/스펙, 면접&gt; → &lt;#2-2. O L N L Sequence : 오르내림, 상승&gt; Sequence에서 소품을 이용한 반 복-나열-확장 안무로 구성하고, &lt;#2-3. Runway Sequence : 아슬아슬 걷기&gt;는 어두운 터널에 갇힌 청년이 고민하는 찰나를 '조심스럽게 한발씩 나아가는' 연출하여 환기를 돕는다. 장면 말미에 한 청년이 낙하한다.</p>			
장면 스케치				
2-1 Part1 (Office)				
	Table Movement Formation 1		Table Movement Formation 2	



3-1	소주제	Confused : Solo (갈등)	러닝타임	8'00"
	<p>'청년'은 높은 이곳이 무섭지만 걸어야한다. 하지만 건다가 낙하하고 (밑에서 받아주는 다른 무용수들) 정상에 도달하여도 추락한다. 위험에 떠밀린 청년들은 터널을 폭주하는 기차에 계속 오른다. 그 모습이 마치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는 사람 같기도, 빌딩에 매달린 사람 같기도, 낙하하는 사람 같기도 하다. 그 와중에 홀로 남겨진 무용수의 솔로 장면인&lt;Conflict - Solo Sequence&gt;가 이어진다. 더 나아가지도, 돌아가지도 못하며 흔들리기를 반복하다가 몸을 던진다</p>			

장면 스케치



3-2	소주제	Confused	러닝타임	7'00"
	<p>다시 고층 빌딩을 오르는, 바닥을 기어가는 형상들이 지난다. 그리고 나오는 사뭇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하고, 현재의 몸부림에 대해 회의감을 느낀다. 그 뒤로 여전히 이 터널 속을 헤매는 '나와 같은'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고 이내 그 속에서 혼란을 느낀다.</p>			

장면 스케치



4	소주제	Never Give Up	러닝타임	9'00"
	터널 안에 있는 것 같은 다양한 효과음이 계속되고 무대가 정리되자 뉴스 내레이션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무용수들이 하나 둘 안무 포인트에 맞추어 동조되기 시작하고 이내 처절한 청년들의 군무가 이루어진다. <#Requiem Sequence>			
5	소주제	Grow Up : 과거와 현재 사이	러닝타임	5'00"
	마치 시간이 흘러 더 어른이 된 '나'가 보인다. 돌아온 일상의 모습 속에서 청년일 때의 '나'를 생각한다. <추가장면>			
Epilogue	소주제	다시 시작되는 터널 & 커튼콜	러닝타임	5'00"
	(전 장면, 군무 말미) 다운스테이지 Foot Light가 서서히 켜지고, 군무의 그림자가 Horizon에 비친다. 오프닝을 열었던 청년이 비틀비틀 무대로 나오고, 모든 무용수들은 바닥에 쓰러진다. 그들 사이로 청년은 계속 비틀비틀, 아슬 하게, 힘겹게, 빛을 찾아 걸어 나간다. (Fade Out) 막이 내린다. [커튼콜 연결]			

#### ○ 무대 장치

구분	품명	규격/재질 (W*H, 단위 : cm)	수량	비고
반입	큐브형태 소품	60*60 / 나무합판	20	방염처리완료
반입	상부 장치걸이	60*300 / 나무합판	1	방염처리완료
미정	조명 장비	-	1	추후 결정
미정	Fog Machine	-	1	추후 결정
대여	댄스플로어(블랙)	-	1	부속시설사용
대여	빔 프로젝트 및 마이크	-	1	부속시설사용

## IV. 주요 제작진 및 출연진

#### ○ 캐릭터

청년들 ( 9 명 ) : 젠더프리 캐스팅으로서, 2일의 공연일 동안 남/여 그룹을 나누어 진행. 같은 역할임에도 발레를 비롯한 움직임에 능하며 표현력이 탁월한 무용수로 구성.

Group A	Group B
9명의 남자무용수	9명의 여자무용수

#### ○ 제작진

역할	이름	소속 및 주요 이력	비고
연출/안무	함도윤	아함아트프로젝트	확정
드라마터그	김지은	아함아트프로젝트<청년실신>, 서울발레시어터<피터 팬> 등	초연 참여
조안무	최영준	아함아트프로젝트 멤버, 프리랜서 현대무용가	초연 참여
	김종우	팀 유월, 영화<유월>,<인생은 아름다워>안무 외	초연 참여
무대감독	이도엽	스테이지 매니지먼트 '결작' 대표/무대감독	확정
조명디자인	김익현	스테이지 매니지먼트 '결작' 조명감독	확정
무대디자인	조일경	스테이지 매니지먼트 '결작' 디자이너	확정
의상디자인	김미경	'스케치' 대표	확정
음악	정찬희	뮤직프로듀서그룹 'MOT', MNET '너희가 힙합을 아느냐' 편곡	확정
촬영	허웅	'Ugly Art Company' 대표	확정
홍보/운영	강주신	(사)한국발레협회 사무과장	확정

○ 출연진 (9월 9일 A팀-남자)

역할	이름	성별	소속 및 주요 이력	참여여부
출연자1	서보권	남	현)엠비규어스댄스컴퍼니 객원, 전)국립현대무용단 단원	확정
출연자2	박영성	남	현)WAKE danse club 소속, <Never Give Up> 출연	확정
출연자3	정종웅	남	프리랜서무용수, 아함아트프로젝트, 아트프로젝트보라 등	확정
출연자4	류형수	남	프리랜서무용수, 전)유니버설발레단 단원	확정
출연자5	김동철	남	현)서울발레시어터 단원, 전)유니버설발레단 단원	확정
출연자6	윤오성	남	프리랜서무용수, 전)서울발레시어터 수석무용수	확정
출연자7	김세용	남	프리랜서무용수, <터미널:The Terminal> 출연	확정
출연자8	홍준기	남	뮤지컬<웨스트사이드스토리>(앤), 무용<Never Give Up> 등 출연	미확정
출연자9	함도윤	남	<Never Grow Up> <터미널:The Terminal> 등 출연	확정

○ 출연진 (9월 10일 B팀-여자)

역할	이름	성별	소속 및 주요 이력	참여여부
출연자1	이승아	여	프리랜서무용수, 99아트컴퍼니 <침묵>, <작은방주> 등	미확정
출연자2	이승연	여	프리랜서무용수, <터미널:The Terminal> 등 출연	확정
출연자3	배소미	여	프리랜서무용수, MOVER 객원무용수	확정
출연자4	정다영	여	Hui Movement 대표, 전)국가대표 체조선수	확정
출연자5	신선미	여	프리랜서무용수, 전)서울발레시어터 수석무용수	확정
출연자6	김나연	여	프리랜서무용수	확정
출연자7	정수민	여	프리랜서무용수, <호두까기인형> 등 출연	확정
출연자8	박미주	여	뮤지컬<에버애프터>, 무용극<도시속계절> 등 출연	확정
출연자9	원진호	여	프리랜서무용수, 전)올란드발레단(USA) 수석무용수	확정

○ 추진 일정

일정	세부 내용	비고
03.01~03.31	사업 기획 및 세부 프로그램 계획	
03.01~03.31	공연장 대관 신청 및 제작진, 출연진 섭외	현재
04.01~05.31	공연장 대관 계약 및 확정, 사업계획서 수정	
05.10~05.31	출연진 계약 및 프로필 촬영	
06.01~06.20	교부 신청, 홍보물 디자인 및 제작	
06.15~07.30	클라우드펀딩 오픈 및 홍보 개시	
07.01~09.08	공연 연습 진행 및 스태프 회의	
08.15~08.31	답사 및 극장스태프 회의 (극장-단체)	
09.08~09.10	극장 반입, 공연, 철수	

○ 무용수 일정

일정	세부 내용	비고
03.13~03.31	공연장 대관 및 제작진, 출연진 섭외	현재
05.01~05.31	계약 및 프로필 촬영	
06.13~06.30	전체 미팅 / 개별 및 그룹 연습	
07.01~08.30	전체 연습 (매주 토요일 12:00~, 한성대학교 예정)	
09.01~09.07	최종 리허설	
09.09	무대 리허설 및 A팀 공연	
09.10	무대 리허설 및 B팀 공연	

- 프로필 촬영 : 서울시 영등포구 영중로29길 4 지하1층 도와지스튜디오

- 연습 장소 : 미정 (서울 내)

## ■ Script <수정 중>

### Character

-청년1 [DRUNKEN] :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와 동시에 구직을 하는 이 시대의 보편적인 청년. 평범한 학력과 이력 때문일까? 취업은 될 듯 말듯 늘 실패하고 오늘도 고된 아르바이트 후, 빈약한 안주에 거한 술을 마시고 집으로 가는 길에 어디론가 전화를 걸어보지만 넘어가는 음성사서함. “내가 이번엔 반드시”

-청년2 [INFLECTION POINT] : 일확천금, 비트코인 성공신화를 위해 가상화폐투자에 뛰어든 청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니 사실 자면서도 내내 확인했던 휴대폰 화면에 따라 기분도 함께 오르락내리락 한다. “누구나 변곡점은 있기 마련이고, 나 이제 올라간다”

-청년3 [Hiki Komori] : 선택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하기에 경제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나는 그래도 남들이 보면 꿈을 이루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은 변변치 않은 일들의 반복과 성과 없는 제자리걸음. 주변 친구들은 진즉에 꿈을 포기하고 다른 길을 찾아 떠나더니, 잘나가는 세일즈맨이 되어 돌아왔다. 이제 와서 그들의 선택을 따라 돌아가기에도, 지금의 선택 속에 내 길을 계속 가기도 늦은 것만 같다. “그래도 잘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청년5 [Nomad(e)] : ‘현실’ - 가난으로 집 밖에 내몰린 젊은 청년들. 집이 있어도 늘 불안한 하우스푸어. 우리에게 서울은 단 1평의 공간도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 ‘가상’ - 디지털(모바일) 속 다양한 기술력과 기기로 무장한 나는 무한한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를 횡단하며 한 곳에 정착하지 않는다. 휴대폰 하나로도 어디든 갈 수 있고, 모든 생활이 가능한 지금. 내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기대어 쉴 수 있는 집이다. “정착하고 싶어요.”

-청년8 [It's Me] : ‘나보다 좋은 차를 타네’ ‘나보다 잘하네’ 사사건건 남과 비교하는 내가 있다. 웬지 모를 초조함이 더해질수록 남과 나를 비교하고 나와 남을 견주어보면서 ‘비교’와 ‘대조’를 하고야 만다.

### [#1. Grand Opening]

막이 시작하면, 무대에 조명이 켜져 있고 오보에의 A(라) 음을 시작으로 오케스트라의 조율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한다. 무대는 서서히 어두워지고, ‘청년1’이 무대 우측에서 등장하자, 소리는 깊은 물에 잠수한 듯 멎어지며 조명이 청년을 비춘다.

청년1 : <대사는 없고 오롯이 표정과 움직임으로 표현 \*괄호안의 숫자는 CUE> 무음-정지 (1) 술에 취해 초점이 조금 없는 눈으로 객석을 응시한다. (2) 객석을 응시한 채 센터를 향해 천천히 걸어간다. (3) 이내 객석을 훑던 눈이 바닥으로 내려오며 비틀거리다가 (4)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멈춰 선다. (5)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막춤을 춘다. 마치 <아비정전>의 장국영처럼. 두 차례 정도 추고 멈추고를 반복하다가 (6) 주머니에 두 손을 넣고 고개를 푹 숙이고는 무대 앞으로 몇 걸음 걸어 나온다. (A)음악 소리와 막춤이 모티브 되어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7) 답답함에 못 이겨 얼굴이 붉으락푸르락 하다. (8) ‘학자금대출, 월세금, 공과금, 휴대폰 요금, 생활비 등을 계산하고’ (B) 울분과 해탈, 막춤으로 경계 없는 움직임이 계속 이어진다 (9) 타이틀 벗어내며 무대 좌측으로 터덜터덜 들어간다.

‘청년1’이 들어가는 동시에 같은 방향, 다른 포켓에서 ‘청년2’가 걸어 나온다.

청년2 : ‘청년2’의 한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있고, ‘청년1’을 지나치며 흘깃 쳐다보다가 휴대폰을 보며 작게 원을 한번 돌고 선다. 조명이 어두워지고-정적 휴대폰을 내내 확인하며 드럼 소리 - 움직임 드럼 소리 + 음악 소리 움직임 손에는 여전히 휴대폰. 그 휴대폰을 계속해서 쳐다보며 움직인다. “변곡점” 암전  
[움직임콘셉트 : 풍선의 상승과 하강, 해파리]

‘청년2’의 장면이 끝나고 ‘청년2’가 천천히 무대에서 사라진다. 무대로 ‘청년3’이 나오고 센터에 쪼그려 앉는다.

청년3 : 음악이 흐르고 Spotlight가 밝혀진다. 없는 것이 없고, 먹지 않아도 배부른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에 들어왔습니다. 이 곳에 들어온 이후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곳을 벗어난 적도 없습니다. 오늘 하루 바깥세상이 어땠는지 모르지만 조용한 이 안에서 나는 하루를 마감합니다. 나는 ‘히키 코모리’입니다. - 결국 난 혼자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다. 모두가 다 아는 그 사실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다. 위험한 곳에 뛰어드는 것만이 용기가 아니라고, 곳곳이 나의 길을 가는 것도 용기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무대 위 '청년3'이 쓰러져있고, '청년5'가 서 있다. '청년5'의 발걸음에 맞춰 '청년3'은 그의 반대편으로 밀려 들어간다. 여행용 캐리어 옆 '청년5'가 객석을 쳐다본다.

청년5 :

청년8 : (엄청나게 대단한 것을 알려주듯) '대조' / 둘 이상의 대상을 서로 맞대어 / 반대되거나 대비되는 것을 찾는 일. / '비교' /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물이나 현상을 견주어 / 서로 간의 유사점과 공통점, 차이점 따위를 밝히는 일. / better는 / good 과, well의 비교급. / '잘' / 의 비교급은 '더 잘', ' 좋음'의 비교급은 '더 좋음'. 반대로 '좋지 않음'을 뜻하는 bad의 비교급은? 바로 worse.

청년9 : / 안녕하세요. 237번입니다. 떨어진 건가요? 다시 한 번만 확인해주시면 안될까요? 제 이름이 조금 흔한 이름이거든요. 아. 아니 잠시만 저 저기요. / 아니 제가 가산점 받으려고 해외 봉사활동도 했거든요. '우간다'라고 거기 시골마을에 위치한 한 학교에 갔었죠. 저는 주로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앞차기', '옆차기', '돌려차기' 태 권 도 . 이 태권도도 군대에서 배웠어요. 군대도 뭐든지 군필이 우대이니깐. 그래서 어깨 탈골 되는 거 수술해서 해병대도 갔다고요. 해병대. 얼마나 빠센지 아시죠? / 근데, 인턴생활이 더 힘들었어요. 아니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시간인데 (업무를 하다보면) 12시 반까지 못나가. 근데 (뭐 먹을라치면) 12시 45분까지 들어와야 돼. 왜? 와서 양치해야지 커피 타야지.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인스턴트) 햄버거나 먹고 있는 거랍니다. 아휴 고달픈 인생. 언제까지 인턴생활 할는지. 그리고 원래 제 전공도 이게 아니에요. 솔직히 대학교에서 전공이라고 배워 나와 가지고 그 일 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냥 어른들이 가라고 하는 대학. 입시 때 돼서야 성적에 맞는 대학과 학과를 고르다보니. 공합 맞는 사람? 얼마나 되겠냐구요. 결국엔 학자금 대출에, 월세에, 핸드폰요금, 생활비. 저축은커녕 결혼? 생각도 없어요. 정말 어디든 면접 불기만 하면. 아 죄송해요 저기 서부장이 오라고 난리네요. 이만 가봐야겠어요. 애플워치 때문에 폰을 못 봤다고 할 수도 없고. 후. 가볼게요.